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추미애 vs 우원식’ 2파전

조정식, 추미애 후보로 단일화...정성호 사퇴·박지원 불출마 우원식 “유감”...선수와 나이 고려 추대 수순 밟을 가능성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출마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당선인으로 단일화했고, 정성호 의원은 사퇴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이날 회동해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 의장 후보 출마자는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총 4명이었지만, 당내 최다선 후보 2명이 단일화를 하면서 급격히 무게추가 추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준 점을 감안할 때 연상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추 당선인에게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후보로 등록했던 정성호 의원은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성심껏 도와주고 지지

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사퇴 과정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가 조정식·정성호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원내대표가 직접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장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당 대표의 의중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이 같은 단일화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된 것은 다양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됐다”며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오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명이었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

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 불신임권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지금은 내가 나갈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 1차 투표에서 재적 당선인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 등 3명(이상 3선·기호순)이 등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이재명 대표 ‘무르익는 연임론’

당내 요구 많고 뚜렷한 대안 없어...다음달까지 결론 관측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둔 가운데 당내에서 ‘또 대표를 이재명(또대명)’이라는 연임론이 무르익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던 이 대표 연임론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로 점점 대세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연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역시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보여준 강한 리더십과 정책 덕에 자연스럽게 연임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 안

팍의 요구가 매우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에 경고장을 준 민심에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현재 다른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당원이냐 당선자 구성을 볼 때 이처럼 친명 색채가 강한 때가 없었는데, 이 대표 외에 누가 당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이 대표가 한 번 더 대표직을 수행하면 계파 간 균형감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임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대표 후보군 모두가 승산이 작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워 보인다.

비명계 내에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앞서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기도 한다.

다만 김 전 지사 역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탓에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 대표가 연임을 원한다면 24년간 없었던 관례를 깨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이 대표의 결심에 달린 문제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참모들에게 대표 연임과 관련한 의견을 물으면서도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전대’ 허은아, 호남권 최다 득표

19일 수도권 연설회 후 대표 결정

차기 개혁신당 지도부를 뽑는 제1차 전당대회 광주·전라·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허은아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12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대학생·인론인 평가단 투표를 했다. 지역 대학생 40명과

기자단 10명 등 총 50명이 패널로 참석해 1인 2표를 행사했다.

허 후보는 유효표 총 96표 중 31표를 기록했고 이기인 후보 29표, 조대원 후보 22표, 전성균 후보 13표, 천강정 후보 1표 순이었다.

지난 8일 열린 대전·세종·충청 연설회에서는 전체 94표 중 이 후보가 31표를 받았고, 허 후보가 29표, 조 후보 17표, 전 후보 11표, 천 후보 6표를

얻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부산·대구·경북에서 열렸으며 오는 19일 수도권·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수도권·강원 토론회 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경선은 당일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인론인 평가단 투표 25%로 치러진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전라·제주권역 합동 연설회 인사발에서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은 무엇보다 호남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치 발전, 당세 확장에 좋은 아이디어로 경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khn@

여의도 브리핑

첨단 기술 개발해 의료 자원 부족 해결안 논의

민형배 의원 국회서 토론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지난 10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초고속 레이저와 광·음향 기술 개발로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GIST 초강력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PAUL), 한국광학회 양전자전자분과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인민 의원이 주관했다.

김형택 GIST PAUL 센터장은 ‘레이저 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해민 GIST APRI 선임연구원은 ‘광·음향 의료 진단 기술 현황 및 과제’로 발표했다.

레이저는 이미 안과 수술 등 의료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초고속 레이저 기술의 의료 진단 분야



적용은 미진한 상황이다. 최신 융합형 펄초 펄스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적외선뿐만 아니라 테라헤르츠와 엑스선 등을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 발생시킨다는 다양한 파장과 특성을

가지는 다중빔 생성이 가능해져 다양한 의료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 진단 혁신 기술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며 “100년 넘게 서구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진단기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8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열람 공고

광주광역시와 봉산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첨단방면 연결로 및 봉산공원 추진일로 개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 번호	구간	총연장 (m)	면적 (㎡)	중요 경리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광주광역시도	대로 2-11 호선	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 5-2번지 (교동광장 85호) 종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일동 880번지 (대로2-11호선)	757.6 (변경없음)	24,530.6 (변경없음)	봉산 근린공원, 교동광장 85호	·봉산공원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시행 기간 변경

2.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경: 2018. 11. 05. ~ 2024. 6. 30.
- 변경: 2018. 11. 05. ~ 2027. 4. 30.

3.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봉산공원개발 주식회사

4.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4. 5. 13. ~ 2024. 5. 27.(14일 이상)
- 열람장소: 광주광역시(도로과 ☎062-613-4722 / 도시공원과 ☎062-613-44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사 및 용지조사(변경없음)

- 시 홈페이지 및 도로과, 도시공원과에 비치 열람

6. 위치도 및 도로계획명도

- 도로과 및 도시공원과에 비치 열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조사 가. 범입토지조사서(변경없음)

연번	구	소지자	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상면적	범입면적		
합계				24필지		100,220.3	24,530.6		
1	광산구	수원동	5-28	도	951	951		광주광역시	
2	광산구	수원동	5-29	도	261	261		광주광역시	
3	광산구	월계동	705-4	도	78	78		광주광역시	
4	광산구	월계동	705-25	도	1,574	1,574		광주광역시	
5	광산구	월계동	895-1	도	40,267.5	3,837		광주광역시	
6	광산구	산일동	880	도	37,034.6	2,403		광주광역시	
7	광산구	산일동	880-3	도	9,732.6	9,657		광주광역시	
8	광산구	월계동	705-18	전	606	606		광주광역시	
9	광산구	월계동	705-19	임	1,749	1,749		광주광역시	
10	광산구	월계동	신2-2	임	277	277		광주광역시	
11	광산구	월계동	705-17	전	109	109		광주광역시	
12	광산구	월계동	706	담	180	180		광주광역시	
13	광산구	월계동	704-2	전	214	214		광주광역시	
14	광산구	월계동	703-1	담	3	3		광주광역시	
15	광산구	월계동	700-2	전	118	118		광주광역시	
16	광산구	월계동	700-4	임	409	409		광주광역시	
17	광산구	월계동	700-5	임	190	190		광주광역시	
18	광산구	월계동	700-3	임	84	84		광주광역시	
19	광산구	산일동	798-4	임	754	754		광주광역시	
20	광산구	산일동	신22	임	3,359	481		산일부동산신도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21	광산구	산일동	신21-3	임	1,621	21		산일부동산신도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22	광산구	산일동	798-6	임	525	525		광주광역시	
23	광산구	산일동	798-3	임	34	34		광주광역시	
24	광산구	산일동	799-7	대	9.6	9.6		광주광역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첨단우리병원